

##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가는 '자아찾기'



###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지음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나고 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류시화 시인은 특유의 울림과 시선을 담은 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시인이다.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등은 여전히 회자되는 베스트셀러 시집이다.

이번에 류시화 시인이 펴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삶과 인간을 이해하는 51편의 산문이 수록돼 있다. ‘마음이 담긴 길’, ‘웨렌시아’, ‘찾잔 속 파리’,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마음의 이야기꾼’ 등 여러 글들은 페이스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내려놓은 후의 자유를 말하는 글이다. 저자는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라며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지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늘 새로워지고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잠재해 있음을 투우장의 소를 통해 이야기하는 ‘웨렌시아’, 목소리의 크기는 가슴과 가슴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 과정에 관심이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집 코벳 이야기’ 등은 읽을수록 곱씹게 되는 글이다.

쉽게 읽히면서도 무게가 담긴 문장들은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을 성찰하게 한다. 담백하지만 진정성 있는 울림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나가는 ‘자아 찾기’로 귀결된다. 20년 전에 발표했던 첫 산문집보다 첫 에세이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선하고 잔류하다.

류 시인은 말한다. “어느 날 삶이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상실을 겪고 아픔의 불을 통과했다 해도 삶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더숲·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죽은 아내에 보낸 편지이자 자신에게 남기는 고백



### 아주 긴 변명

니시카와 미와 지음

갑작스러운 버스 사고로 아내를 잃은 인기 소설가 쓰무라 케이. 아내에게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지 않았던 그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의 눈을 의식해 슬픈 척 연기를 한다.

일본의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니시카와 미와의 장편소설 ‘아주 긴 변명’은 특유의 세밀한 심리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데뷔 이래 직접 쓴 오리지널 각본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시나리오를 소설화해 두각

을 나타낸 작가답게 만만찮은 내공이 느껴진다.

일본 번역전문가 김난주 씨의 번역으로 맛깔스러운 문체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작가가 직접 감독한 동명 영화 ‘아주 긴 변명’은 2016년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으며 상영된 바 있다.

소설은 사고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죽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이자 과거의 자신에게 남기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나아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가지는 않으리라는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다.

〈무소외·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온갖 색으로 물든 세계의 어제와 오늘을 보다

## 문명을 담은 팔레트

남궁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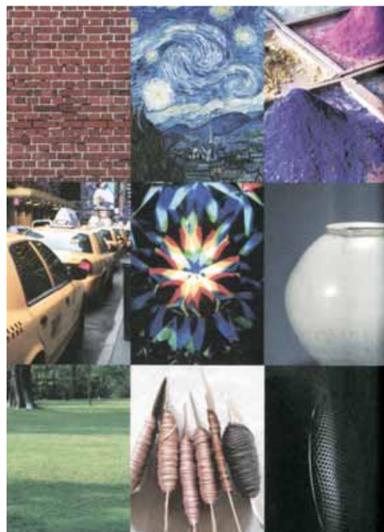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수많은 색(色)과 마주한다. 세상은 다채로운 색채의 전시장이자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주위에는 다양한 색들의 사물이 놓여 있다. 일상에서도 색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한다. 옷을 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등등 행위의 많은 부분들이 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색은 어떤 색일까? 바로 파랑색이다. 색상 선호도에서 늘 수위를 차지하는 색이 바로 파랑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적인 관점에 따르면 파랑은 심리를 차분하게 해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파랑이 긍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청신호’ ‘블루칩’,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다분히 그런 의미가 함의돼 있다. 병원, 은행 등의 로고에 파랑색이 자주 쓰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색은 이렇듯 사람의 행위를 영향을 미친다. 울적할 때 평소 좋아하는 색을 가까이 두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색은 예술,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류와 함께한 색 이야기를 갈무리한 책이 출간됐다. ‘생명 문화’로 불리는 남궁산 화가가 펴낸 ‘문명을 담은 팔레트’는 색채와 함께 떠나는 세계 탐험 이야기다.



색은 사람의 행위 뿐 아니라 예술, 종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창비제공〉

색채에 민감한 관화가답게 책에는 색채의 근원과 역사가 망라돼 있다. 즉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하얀, 보라, 주황, 분홍 등 9가지 색이 사람과 함께한 과정이 펼쳐진다.

빨강은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색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흙에서 얻은 빨강으로 동굴벽화를 그렸다. 이들은 흙에서 구한 빨강을 땅속을 흐르는 피로 여겼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와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오랜 세월(1만70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붉은 색을 띤다. 중세 유럽 미술에서 가장 신성한 대상에 쓰

였던 색도 빨강이다. 예수가 흘린 ‘피’는 희생과 사제의 권위를 상징했다.

붉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은 노랑이다. 산수유꽃과 개나리꽃이 만발한 봄은 움츠러 있던 몸과 마음을 펴게 한다. 색채학자들은 노랑을 “환희, 희망, 빛, 포근함, 잘 익은 곡식”을 대변하는 색으로 본다.

그러나 저자는 역사적으로 노랑이 따뜻한 의미만을 상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란 색은 독극물’로 여겨질 만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양에서 노랑은 경계와 멸시를 상징하기도 했다. 중세 독일과 에스파냐 등지에서는 매춘 여성에게 노란 망토를 착용토록 했다. 중세 기독교 회화에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옷도 노란색으로 채색돼 있었다.

그러나 동양에서 노랑은 다른 대접을 받았다. 중국의 황제는 ‘황룡포’를 입었다. 조선의 임금 중에도 고종과 순종은 노란 옷을 입었다.

초록은 안전과 중립, 평화를 상징한다. 저자는 “초록 색은 협업을 낮추고 긴장감을 덜어 준다고 알려져서, 신경과민이나 두통이 심한 사람은 초록색을 곁에 두는 게 좋다”고 말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초록은 성스러운 색으로 물질과 정신의 풍요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초록 또한 인류문명사에서 긍정성을 담보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악마, 괴물 등이 초록으로 표현되었다고 한다.

보리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색이다. 독일 심리학자 에바 헬러에 따르면 보라색은 “복잡한 감정, 자유분방한, 개인주의, 독창성” 등을 연상하게 한다고 한다. 저자 또한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색이기 때문에 따뜻한 것과 차가움, 감성과 이성 같은 상반되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책을 읽다보면 색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색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색의 의미가 바뀌면서 인류 문명도 변곡점을 맞았다는 사실도 만난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구제역사태 대규모 살처분이 유일한 대안일까



### 불확실한 시대의 과학 읽기

김동광 외 지음

구제역, 조류독감, GMO, 화학물질, 핵발전소 문제 등... 혼돈이 만연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날 과학과 사회를 생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과학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의 주제들은 생각만큼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 김동광 과학기

술연구소 연구원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쓴 ‘불확실한 시대의 과학 읽기’는 구체적인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과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들은 과학의 논쟁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교훈과 통찰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논쟁을 통해 어떤 쟁점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과학기술의 문제들이 담겨 있다. ‘구제역 사태 대규모 살처분이 유일한 방안일까?’처럼 당장의 현안들이 수록돼 있다. 〈구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문학·고전문학에서 찾아낸 ‘인간다움’ 이야기



### 인문학, 인간다움을 말한다

송용구 지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인간다워야 하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다운 모습을 점차 잃어가는 우리에게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책 ‘인문학, 인간다움을 말한다’가 출간됐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번역가로 폭넓

게 활동하고 있는 송용구 고려대 교수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또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인문학과 고전문학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이러한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담겨 있다.

이상의 ‘날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미켈레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필 벅의 ‘대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등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들려주는 인문학과 고전문학에서 찾아낸 ‘인간다움’ 이야기 가 흥미롭다. 〈평단·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실, 20인실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